

정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기술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나선다

- 내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총 8차례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 개최, 7월중 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 발표
- M&A·신기술금융회사 투자·비상장 주식거래 활성화 등 상장 외 자금 모집 지원방안도 순차 검토·발표 추진

정부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최근 벤처투자 둔화세가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신기술 개발·사업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참고1> 참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기업의 특례상장제도와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2> 참조).

우선, 시장의 관심이 많은 특례상장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6.20일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 기술기업들을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6.21일(수))부터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딥테크’ 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핵심 기술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고, 침체된 벤처 투자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6.21일~6.22일 서울 논현(아세아타워)을 시작으로, 바이오·의료기기, 반도체, AI·빅데이터 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오송(6.23일), 용인(6.30일), 판교(7.10일), 구미(7.12일), 익산(7.20일)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술기업들이 현재 운영 중인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준비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보완에도 반영한다(☞ <참고3> 참조).

한국거래소는 '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장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와 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특례내용이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턴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그동안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조언들을 알아서 찾아다니고 거래소는 들어온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에만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핵심 기술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장 방식이 무엇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와 유관기관 입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유망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이번 8차례의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이 같은 기술기업 맞춤형 순회 설명회를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 일정* >

일시	장소	참가대상	내용
6.21(수), 22(목)	서울 논현(아세아타워)	업권별 협회, VC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특례 상장제도 및 중점심사 사항 등 설명 ■ 상장희망기업 대상 질의응답·컨설팅
7.6(목)	서울 역삼(노보텔엠베서더)	혁신기술 벤처 등	
6.23(금)	충북 오송	바이오, 의료기기 업계	
6.30(금)	경기 용인	반도체 소부장 업계	
7.10(월)	경기 판교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업계	
7.12(수)	경북 구미	로봇, 모빌리티 등 소부장	
7.20(목)	전북 익산	스마트팜 등	

※ 장소·일시는 업계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KRX에서 추가 보도자료 배포예정)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자본시장연구원·벤처캐피탈협회·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7월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6.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매주 TF 회의를 개최하여 '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복잡해진 특례상장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제도·운영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참고4> 참조).

먼저, ❶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임에도 일률적으로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이 소요되고, ❷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기관 간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작스러운 보완 필요 사항이 발생하여 기술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들의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을 절연하기 위해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하거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 기업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❸현재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되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아울러, 특례상장 과정에서 ❹기술평가나 상장심사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❺한국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KPI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력은 우수함에도 경영 투명성 등 다른 요건이 미비하여 ❻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에게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여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❼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점검과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술특례 상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는 글로벌 거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부처 TF에서는 상장 외 자금모집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주요 과제와 관련한 추가 보완 필요사항도 속도감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윤덕기 (02-2100-26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장지원 (02-2100-2654)
		담당자	사무관	남동우 (02-2100-286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책임자	사무관	정태호 (02-2100-2861)
		담당자	사무관	김준수 (02-2100-286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이종우 (044-204-77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4540)
		담당자	서기관	김성건 (044-203-4543)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책임자	과 장	박상민 (044-202-6750)
		담당자	사무관	노명종 (044-202-675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8100)
		담당자	팀 장	이윤길 (02-3145-8482)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책임자	국 장	김부곤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송경용 (02-3145-712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	책임자	부 장	이원국 (02-3774-9480)
		담당자	팀 장	이찬호 (02-3774-9490)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부	책임자	부 장	이미현 (02-3774-9600)	
	담당자	팀 장	강세종 (02-3774-9350)	
	책임자	부 장	이원일 (02-3774-9700)	
	담당자	팀 장	정용조 (02-3774-9710)	

참고 1

최근 벤처투자 및 기술특례상장 동향 (VC협회)

- (벤처펀드) 벤처펀드 결성은 '22년 10.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후 '22.4분기부터 감소세, '23.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8.6% 급감

* 연도별 펀드결성(조원): ('18년)4.8 → ('19년)4.2 → ('20년)6.9 → ('21년)9.5 → ('22년)10.7

- 특히, 금융기관의 사모신탁으로 펀드에 출자하던 개인의 출자가 '22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

* 분기별 개인출자(억원): ('22.1Q)5,526→('22.2Q)3,194→('22.3Q)2,403→('22.4Q)1,808→('23.1Q)454

- (벤처투자) '22년 벤처투자는 '21년 대비 11.9% 감소한 6.7조원 기록 후 투자심리 위축으로 '23.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

- '22년 상반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하반기부터 투자가 대폭 축소

< 분기별 실적(단위: 조원) >

구 분	'22.1Q	'22.2Q	'22.3Q	'22.4Q	'23.1Q
조합결성	2.7(68% ↑)	1.9(47% ↑)	2.7(3% ↑)	3.5(13% ↓)	0.6(79% ↓)
투 자	2.2(69% ↑)	1.9(1% ↑)	1.3(39% ↓)	1.3(44% ↓)	0.9(60% ↓)

* 괄호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 특히 바이오 기업은 신규상장 감소 및 상장 후 주가부진 등 회수여건 불확실성으로 다른 업종 대비 더욱 감소

* 1분기 바이오 투자실적 전년동기 대비 63.3% 감소(전체 투자 60.3% 감소)

< 신규 벤처투자 실적(단위: 개사, 억원, %) >

구 분	'18	'19	'20	'21	'22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투자금액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9,162	△11.9
바이오/의료 투자금액	8,417	11,033	11,970	16,770	11,058	△5,712	△34.1

< 업종별 코스닥 기술특례 신규상장 기업현황(단위 : 개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바이오 기업	15	14	17	9	8
非바이오 기업	6	8	8	22	20
합 계	21	22	25	31	28

참고 2

기술기업 성장자금 모집 활성화 관련 주요 검토과제(案)

◇ ①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②상장외 자금모집 지원 측면에서 속도감 있게 검토하여 추진가능 과제부터 즉시 추진

① (1주제)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개선

주요 검토과제	주요 내용
① 특례요건 완화	▪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중요첨단기술 보유 우량기업도 일반 기술기업과 동일하게 복수기관의 기술평가 의무화로 시간·비용부담 多 → 완화가능성 검토
② 특례대상 확대	▪ 실패위험이 높은 신기술은 벤처(연구)-중견기업(사업화) 간 연계가 중요하나 중견기업 이상의 자회사는 특례상장 제한 → 스케일업 지원 검토
③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시 산업전문가 참여 확대	▪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필요 → 기술·산업계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심사참여 확대
④ 상장심사 재도전 지원	▪ 기술력은 우수하나 경영투명성 등 미비로 미승인 기술기업 다수 → 재도전 기회 지원방안 검토
⑤ 거래소-금감원 정보공유로 신속상장 지원	▪ 거래소-금감원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증권신고서 심사시 예상치 못한 보완필요사항 발생 → 정보공유 활성화 추진
⑥ 상장 이후 공시 및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 등 사후관리	▪ 기술특례기업의 실적·기술개발 현황 등 공시 부족 → 기술개발현황 공시강화 등 투자자보호장치 검토

② (2주제) 상장 외 자금모집 지원

주요 검토과제	주요 내용
① M&A 활성화	▪ M&A 특별대출 프로그램, 성장단계별 컨설팅 등 M&A 활성화 지원방안 추진('23.5월 既 발표)
② 세컨더리 펀드 조성	▪ 벤처투자자들이 후속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기도래 펀드 지분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 조성 추진('23.4월 既 발표)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도개선	▪ 민간 VC투자 핵심인 신기사의 투자·운용범위가 제한적 → 창투자·PEF 등 여타 투자기구 수준으로 확대
④ 성장단계별 체계적 금융지원	▪ 초기, 중기, 후기 벤처기업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 실시 ('23.4월 既 발표)
⑤ IP금융 활성화	▪ 특허청, 성장사다리펀드 공동출자를 통해 조성한 기술금융 펀드 투자 실시
⑥ 비상장거래 플랫폼 인가방안	▪ 현행 장외거래인프라는 시장 거래수요 대비 불충분 →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⑦ BDC 입법 및 활성화	▪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BDC 도입 국회 논의중 → 도입시 제도안착 지원

1. 행사 목적

- 업계 대상 설명회* 및 거점별 로드쇼를 개최하여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와 애로사항 수렴 및 기술기업 신규 상장수요 적극 발굴

* 금융위·원, 금투협, VC협회, 바이오협회, 벤처기업협회, 반도체협회 등과 공동 개최 추진

** 4차산업(20개 분야) 및 바이오산업의 질적심사 요건을 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한 업종별 심사제도가 19년에 도입 되었으나, 많은 기술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6.9일 회의시 VC 협회)

2. 행사 개요

- 차주 중 주요 업권별 협회 대상 상장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상장희망기업 대상 지역별 홍보 로드쇼 개최

- (설명회) 주요 업권별 협회에게 업권별 기술특례 상장제도, 중점심사 사항 및 기술특례 상장 성공사례 등을 상세 소개
- (로드쇼) 상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제도 · 성공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고, 신청기업에게 개별 질의응답 · 컨설팅 시행*

* 현장 신청기업 대상으로 로드쇼 이후에도 컨설팅 지속 진행

< 행사 일정(안) >

일시	장소	참가대상	내용
6.21(수), 22(목)	서울 논현 (아세아타워)	업권별 협회, VC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특례 상장제도 및 중점심사 사항 등 설명 ■ 상장희망기업 대상 질의응답 · 컨설팅
7.6(목)	서울 역삼 (노보텔엠베서더)	혁신기술 벤처 등	
6.23(금)	충북 오송	바이오, 의료기기 업계	
6.30(금)	경기 용인	반도체 소부장 업계	
7.10(월)	경기 판교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업계	
7.12(수)	경북 구미	로봇, 모빌리티 등 소부장	
7.20(목)	전북 익산	스마트팜 등	

※ 장소·일시는 업계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KRX에서 추가 보도자료 배포예정)

참고 4

기술특례상장 개요

-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평가 및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일반기업의 경우 상장을 위해서는 재무 또는 시총 등의 일정수준 이상의 계량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사실상 계량요건 적용없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①” 또는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평가^②”가 있는 경우 기술성 중심의 질적요건**을 중점적으로 심사***
 - * 재무상황은 주요 심사항목에서 제외되고, 영업상황도 과거 매출액 및 이익실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 ** 영업상황, 재무상황, 기술력, 성장성, 경영투명성·안정성, 투자자보호
 - *** 경영투명성·안정성, 투자자보호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심사

① 기술평가 특례 : 복수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보유기술을 평가(A등급 & BBB 등급 이상)

② 성장성추천 특례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

- 특히, 산업육성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및 4차산업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성장기업과 차별화된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을 적용 중
 - (바이오) 일반 기술성장 기업 상장요건과 유사하나, 질적요건 중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심사
 - * (일반기술기업)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의 완성도·차별성 등,
(바이오기업) 원천기술 보유여부 및 기술이전, 임상여부 등 의약품 상용화 가능성 등
 - (4차산업) 질적요건 중 영업상황 요건을 주력기술의 4차산업 연관성·독창성 등 혁신성 요건으로 대체하고 성장성 요건도 차별화

일반 기술기업	4차 산업 기술기업
(영업상황)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 신규 매출처 확보가능성 등	(혁신성) 주력 기술·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
(성장성) 상장후 이룬 시간내 매출·이익 창출 가능 여부	(성장성)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